

파견기간	2025학년도 1학기	<b>교환학생 귀국 보고서</b>	학 번	2022-14873
파견국가	독일		소 속	기계공학부
파견대학	RWTH Aachen University		성 명	현나린

###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해외에서 한 번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교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사람들,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제 사고방식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고,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 1. 파견대학/지역 특징

아헨은 독일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과 맞닿아 있어 유럽 내 여러 나라로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도시는 크지 않지만 학생 인구가 많아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헨은 다른 유럽 도시들에 비해 치안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교환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아헨공대(RWTH Aachen University)는 독일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으로, 약 47,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중 11,000명 이상이 국제학생일 정도로 국제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헨공대의 기계공학 학부는 유럽 내 최상위권으로 꼽히며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 2.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이번 교환학생의 목표 중 하나는 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었는데, 아헨은 유럽 한가운데에 있어서 어디든 가기 편리했습니다. 주변에 쾰른이나 뒤셀도르프 같은 큰 공항도 있고, 기차로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근처 나라에 금방 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제 전공인 기계공학이 아헨공대에서 특히 유명하다 보니,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와서 생활해 보니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었고, 전공 수업도 만족스러워서 이번 교환학생 경험에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 1. 비자 신청 절차

- 비자 발급 타임라인

24.12.04 주한독일대사관에 예약 신청

25.01.20 인터뷰 일정 메일

25.02.10 주한독일대사관 방문하여 비자 인터뷰

25.02.17 비자 수령 전화

25.02.26 주한독일대사관 방문하여 비자 수령

예약 신청부터 수령까지 약 3개월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걸릴수도 있으니 비자 신청은 미리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인터뷰 일정 통보 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터뷰 일정을 기다리며,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작성해서 출력), 여권 사본, 최근 여권사진(6개월 이내 촬영), 독일 대한 입학허가서(아헨공대에서 Application 이후 받은 입학허가서), 영문 재학증명서, 영어 또는 독일어 공인 인증점수 확인서, 강의 언어 확인서, 보험 계약서 영문, Motivation Letter, 슈페어콘토입니다.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일정이 잡히고,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갈 땐, 인터뷰 일정 통보 메일을 프린트하고 가야합니다. 입구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올라가셔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 비자 발급 수수료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니 현금을 꼭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몇 주 뒤 독일 대사관 번호로 비자 수령 전화가 옵니다. 미리 독일 대사관 번호를 저장해두니 거절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 수령은 다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고만 오면 끝이 납니다.

## 2. 숙소 지원 방법

아헨공대 교환학생이 방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1)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신청(Quota Room)

Application이 끝나면 학교에서 기숙사 신청 메일이 옵니다. 메일 속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2)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신청

STUDIARENWERK AACHEN 홈페이지에서 Housing application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엔 대기 번호가 나오고, 한 달에 한번씩 신청 갱신을 해야합니다. 지역 기숙사는 대기 번호가 매우 길기 때문에, 교환학생 신청 결과가 나온 후 바로 신청하였지만 아헨에서 지낸 지 한달 뒤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 3) 직접 구하기

학교 기숙사와 지역 기숙사에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직접 숙소를 구해야 합니다. 저 역시 학교 기숙사에서 떨어졌다는 메일을 받은 뒤, 아헨에서 지낼 방을 직접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헨에서는 WG-Gesucht 앱을 통해 방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앱은 WG(flatshare, 공동주택)에서 함께 지낼 사람을 찾는 플랫폼으로, 아헨을 검색하면 다양한 방이 나옵니다. 방의 형태에는 원래 살던 사람이 잠시 집을 비워 단기간 거주자를 찾는 sublet과, 장기적으로 지낼 사람을 찾는 long-term 임대와 있습니다. 교환학생처럼 6개월 동안 머무르는 경우에는 단기 임대가 적합합니다. 지역은 아헨의 큰 원(circle) 안쪽을 추천하며, 특히 동쪽 지역(Rothe-Erde역 근처)은 치안이 다소 불안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WG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자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취미, 여가 활동, 공동 생활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또한 WG 소개글의 분위기를 참고하여 맞춰 쓰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약 100개의 지원서를 보내면 10개 정도의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온라인 투어 인터뷰를 진행했고, 아헨에 도착한 뒤에는 직접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방이 없는 상태로 아헨에 도착했기 때문에, 약 2주 동안은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며 방을 알아보았고 이후에 구한 집으로 옮겼습니다.

직접 방을 구할 때는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먼저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광고는 대부분 사기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저는 방을 구할 때 월세가 400유로 이하일 것, 그리고 WG 내에 여성이 최소 한 명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두고 찾아다녔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월세 352유로의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아헨공대에서는 대학 등록할 때, Tuition fee를 냅니다. 약 300유로 정도 내며, 이 금액에는 독일 내 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Semester ticke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별도의 수업료는 없습니다. 만약 스포츠 수업이나 독일어 수업을 듣게 된다면, 독일어 수업은 약 200유로, 스포츠 수업은 과목마다 다른 수업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 IV. 학업

##### 1. 수강신청 방법

아헨공대에서는 Lecture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과목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가 겹치더라도 동시에 두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RWTHOnline 홈페이지의 Course 창에서 수업을 신청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신청은 Lecture 수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7월 초에 진행됩니다. 그동안 수강했던 과목 중 실제로 시험을 보고 싶은 과목만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험 취소는 시험일 2~3일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과목을 시험에 등록해 두고 공부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할 과목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기본적으로 아헨공대는 학사 수업을 모두 독일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환학생은 석사과정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 모든 수업이 학사 수업보다는 깊고, 어렵습니다. 그 중 제가 들었던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Multi Body Dynamics

기계공학과 전공수업 중 박종우 교수님의 '로봇 공학 입문'과 유사한 내용을 배웁니다. 기계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여 진동 특성과 응답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 -Rail Vehicles Vibration Dynamics

이 수업에서는 철도 차량의 동역학과 진동 특성을 다룹니다. 차량 진동이 안전성, 승차감, 선로 손상 등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우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 -CFD(Numerische Strömungsmechanik I)

이 과목에서는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지배방정식(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등)을 배우고, 이를 유한차분법(FDM)을 이용해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다양한 유동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법을 배웁니다. 개인적으로는 3개의 과목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 3. 학습 방법

교수님께서 모든 강의 자료와 지난 기출문제를 함께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연습문제부터 기출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본다면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석사 과정 수업이다 보니 난이도가 있는 편이므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4. 외국어 습득 요령

아헨공대에서는 한 학기에 약 200유로로 독일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수업을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지내던 한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독일어 표현들을 조금씩 배우며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 V. 생활

####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 -코인 육수, 블록국

저는 아헨에 올 때, 참기름, 불닭소스, 다시다, 떡볶이가루 등등 여러 한식을 위한 재료를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재료들은 'go asia'라는 아시안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go asia'에서 살 수 없는 한국에서 챙겨오면 좋은 음식은 코인 육수, 블록국이 있었습니다. 코인육수는 모든 찌개를 끓일 때 넣으면 별다른 조리 과정 없이도 완성됩니다. 블록국은 반찬 요리하고 국까지 끓이기는 귀찮을 때 간단하게 끓여 먹을 수 있어 특히 유용했습니다. 또, 'go asia'에서 떡볶이 양념을 팔긴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떡볶이 양념 분말도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떡볶이는 많이 알고있어서, 외국인 친구들과 파티를 할 때 챙겨가서 요리하면 반응이 좋았습니다.

##### -피크닉 매트

유럽은 어디를 가든 피크닉하기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피크닉 매트 하나 사 와서 늘 들고 다녔는데, 활용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 -동전 지갑

독일은 아직 현금 결제만 가능한 식당이 꽤 있습니다. 동전을 사용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기 전에 작은 동전 지갑을 준비해 왔는데 매우 유용하게 썼습니다.

##### -공기계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휴대폰을 하나 챙겨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독일 현지 유심을 사용하면서 한국 유심은 공기계에 넣어 두고, 인증이 필요할 때 활용했습니다. 또한 유럽은 소매치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비 휴대폰을 챙겨 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현지 물가 수준

##### -음식 물가

유럽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외식 물가는 상당히 비쌉니다. 한 끼에 기본적으로 10-20유로 정도는 써야 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먹을 만한 음식은 케밥입니다. 케밥은 하나에 5-10유로정도로 비교적 싼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헨에서 외식은 거의 안하고,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에서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 -생필품 물가

아헨의 생필품 물가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로 REWE, Aldi, Netto와 같은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고, dm에서도 생필품을 자주 구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싼 편이었습니다.

####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은행, 교통, 통신 등)

##### -식당

제가 추천하는 식당은 Chinese Mensa(중식당), aga(케밥), zoom(케밥)이 있습니다. Chinese Mensa에서는 4-5유로에 밥과 반찬들을 직접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양도 많아서 한끼를 해결하기 좋습니다. 케밥은 독일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길을 걷다보면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양도 많고,

가격도 싸서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먹은 음식입니다.

#### -은행

저는 독일 현지 계좌인 'n26'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회원가입 후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와 연결된 애플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실물카드는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또, n26앱에서 근처 dm이나 REWE에서 쉽게 현금을 뺐을 수 있어, 실물카드 없이도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한편 영국, 체코, 헝가리처럼 유로가 통용되지 않는 나라로 여행할 때에는 트레블카드를 이용해 결제와 환전을 편리하게 해결했습니다.

#### -교통

독일 학생이라면, 'semester ticket'이 생깁니다. 처음 application을 할 때 냈던 tuition fee에 모두 포함입니다. Semester ticket으로는 독일 지역 기차, 버스, 지하철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헨과 가까운 마스트리히트까지도 무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DB라는 독일 기차 앱으로 시간 확인과 예약 모두 할 수 있는데, 독일 기차는 지연이 정말 많이 되니 항상 지연을 감안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신

독일 교환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신은 '알디톡(유심)'과 '보다폰(이심)'입니다. 저는 알디톡을 사용하였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후, 'ALDI'라는 마트에 가면 알디톡 starter pack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본인 확인을 위한 영상통화 후 바로 번호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요금제는 한달에 13.99유로, 전화 문자 무제한, EU 내 데이터 30GB였습니다. 다른 유럽지역에 가셔도 불편함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 -학교 생활

처음 학교가 개강을 하면, 교환학생들을 위한 welcome week을 진행합니다. 여러 행사를 진행하며, 서로 친해질 기회를 많이 줍니다. 이 때,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투어, 캠퍼스 투어 등도 첫 주에 진행하는데, 신청 시기를 잘 확인해서 참여하면 학교에 대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아헨공대에는 '목암'이라는 한국인만을 위한 건물이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이곳에서 한국인들끼리 개강파티도 진행합니다. 이 때, 한국인 유학생들과 친해지면 독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도서관에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목암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 -여행

아헨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유럽을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가까운 곳에 쾰른공항, 뒤셀도르프 공항, 마스트리히트/아헨 공항이 있고, 아헨 중앙기차역이 있어 어디든 이동하기 편합니다. 저는 영국(런던, 코츠월드), 모로코,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라나다, 말라가), 프랑스(파리), 헝가리(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빈), 크로아티아(플라), 포르투갈(리스본, 포르투), 벨기에(스파), 이탈리아(베니스, 피렌체, 로마), 노르웨이(트론헤임), 독일(베를린, 함부르크)를 다녀왔습니다.

### 5. 기타 유용한 정보

아시아 마트인 Go Asia에서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전 상품 10% 세일을 진행하며, 학생증을 제시하면 항상 5%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헨 West역 근처에 위치한 린트 초콜릿 아울렛에서는 린트 초콜릿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추가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아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5개월 동안 생활하며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경험은 제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히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 인연들이 제 교환학생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경험은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09 월 09 일
지원자* <b>서명 필수</b>	현 나 린 (현 나 린)